

일제 말기 가족사연대기소설에 나타난 아버지 형상과 성장의 문법

—김남천의 <대하>, 김사량의 <낙조>를 중심으로

이동재*

- 차례 -

1. 들어가는 말
2. ‘조선적 특수성’을 둘러싼 방법론의 긴장
 - 2.1. ‘아시아적 퇴영성’이라는 도식
 - 2.2. 조선어 글쓰기와 민속학에 대한 전유
3. 성장과 반성장의 동일성
 - 3.1. 욕망하는 아버지와 교환되는 소년
 - 3.2. 원초적 아버지와 영원한 아이
4. 나오는 말

*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강사. sonofthesg@hanyang.ac.kr

[국문초록]

일제말기 김남천이 주장한 가족사연대기소설에 신인 김사랑 역시 동참한다. 개화기를 배경으로 한 소년의 성장을 연대기적으로 그려내며 ‘조선의 특수성’을 규명하려는 로만개조론의 지향을 두 작가 모두 공유하고 있지만 〈낙조〉와 〈대하〉의 결론은 정반대로 보인다. 그들이 소년의 성장을 긍정 혹은 부정하게 된 근거는 그들이 그리고 있는 작중 세계의 원리를 표방하는 아버지 형상을 통해 규명될 수 있다. 김남천의 경우 당대 좌파지식인 사이에서 유통되던 사회경제학적 분석을 토대로 반봉건적인 아버지 형상을 부조했고, 김사랑은 모국어 글쓰기와 ‘해와달 설화’를 방법론으로 삼아 원초적인 아버지 형상을 세공했다. 전자의 아버지 형상은 경쟁과 극복이 가능한 대상으로 후자는 대결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아버지로 그려진다. 이념에 대한 헌신으로 문학적 여정을 이해했던 김남천의 경우, 전체주의로 기우는 사회 속에서 혁명의 불씨를 살리려는 의욕을 통해 박성권의 형상에 결여를 투입시켰다면, 김사랑은 일본어 창작을 통해 탐구하던 피식민자의 내적 교착을 조선어에 기대어 묘파하는 것에 무게를 둔다. 〈대하〉가 과학의 언어에 기대어 발견하게 된 조선의 희망과 관계한다면 〈낙조〉는 민속학적 대상들의 세계 속에서 기울어 가는 한 시대의 절망과 관계하고 있다. 박성권과 윤성효는 두 소년에게 이러한 심적 조건을 매개하는 표상을 활용된 것이다.

주제어: 가족사연대기소설, 대하, 낙조, 아버지 형상, 성장

1. 들어가는 말

1935년, 카프(KAPF)는 해산했다.¹ 1936년, ‘사상범보호관찰령’, 1937년, 중일전쟁, 1938년, ‘사상보국연맹’ 조직과 ‘국가총동원법’이 잇따르며 사회는 전 시체제 파시즘으로 기울어갔다. 당국의 방침과 날을 세우며 ‘정치성’을 모색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으므로 전향한 카프 문인들은 강력하게 일원화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준거점을 새롭게 모색해야 했다. 그들이 통과했던 정신적 위기는 소설의 ‘위기’ 역시 발견하도록 했다. 임화는 당대 장편소설의 양상이 현실에 매몰되어 사대 기술에 그치기, 또는 자폐적 세계 속에 머물기로 귀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² 주체의 분열상은 현실 자체의 분열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리며 ‘성격과 환경의 조화’를 건져낼 본격소설을 주장했다. 김남천 역시 이 시기를 두고 ‘소설성의 상실’³이라고 규정한다. 10년 가까이 문학장의 선편을 쥐고 있었던 카프 문인들에겐 정신과 창작의 도상에 드리운 분열을 통합할 새로운 길이 필요했다. 물론 이는 검열망을 우회하며 그들이 품고 있었던 이념을 위한 공간을 남기려는 지켜내려는 시도였기에 만만치 않은 곡예를 예고하는 일이었다.

1939년, 김남천은 ‘로만개조론’을 통해 난맥들을 하나의 물길로 종합하여

1 세칭 ‘전주 사건’이라 불리는 카프 2차 검거를 통해 1934년을 시작으로 임화와 김남천을 제외한 대다수의 카프 간부(23명)가 옥고를 치르게 된다. 결국 그들은 전향서에 서명을 하거나 암묵적으로 전향에 대한 동의를 밝힘으로써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들이 출옥한 1935년, 카프는 해산계를 제출하며 해체되었다. 이에 관하여, 김윤식, 「1930년대 후반기 카프문인들의 전향유형분석」, 『한국학보』, 제 16집, 1990 참조.

2 임화는 이를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면 작품 가운데 선 작가가 인생에 대하여 품고 있는 희망이란게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절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 작가의 생각을 살리려면 작품의 사실성을 죽이고 사실성을 살리려면 작자의 생각을 버리지 아니할 수 없는 “뜨렘마”에 빠지는 것이다.” 임화, 「세태 소설론」, 『문학의 논리』, 학예사, 1940, 346면.

3 ‘소설성’이란 용어를 김남천은 같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로만 발생의 사적 고찰로 보아서 과학적 합리적 정신에 의한 개(個)와 사회의 모순의 문학적 표상” 김남천, 「현대조선소설의 이념」, 『김남천 전집 1』, 박이정, 2000, 403면.

돌과할 이론적 계기를 마련한다. 전작장편소설 〈대하〉가 그 과정에서 탄생하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풍속이라는 개념을 문학적 관념으로서 정착시키고 그것을 들고 가족사로 들어가되 그 가운데 연대기를 현현시켜 보자는”⁴ 방법론이 그 핵심인데, 구한말부터 개화기에 이르는 과도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10대나 그 이하의 소년 주인공의 성장을 추적하여 그 속에서 “생기 있는 인물로 된 이데”를 구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카프 문인들은 ‘소년’, 즉 서술의식과 착종된 주체의 성장 과정을 형상화하는 것을 문학적 소임과 실존적 과제를 함께 감당하는 방법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카프계열 작가인 이기영, 한설야가 김남천에 호응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신인으로 분류되었던 김사량도 조선어로 된 가족사연대기소설 〈낙조〉를 발표했다는 사실이다.⁵

39년 4월, 김사량은 〈빛 속으로(光の中に)〉를 내놓았다. 이 작품이 이듬해 상반기 아쿠타가와상 후보로 지명되며 그는 일본 문단에 이름을 알렸다. 그런데 김사량은 문명을 얻기 전이었던 40년 2월부터 『조광』에 〈낙조〉를 연재한다. 〈낙조〉 이전에 조선어로 동시, 동화, 평문, 수필 등을 써냈을 뿐 모국어의 세계에서 긴 호흡의 형상화 작업을 시도한 적이 없었기에 이 작품은 특별한 창작적 의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그가 김남천의 ‘로만개조론’에 힘을 싣고 있는 정확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낼 실증적 정보는 충분치 않다. 몇몇 평문에서 김남천의 ‘자기 고발론’에 공감해왔던 바가 있고⁶, 같은 평안도 태생으로 평양고보에 몸담았다는 공통점이 있긴

4 김남천, 「산문문학의 일년간」, 『인문평론』, 1941.1) 『김남천 전집 1』, 박이정, 2000, 691면.

5 시기에 따라 분류가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다음의 작품들은 가족사연대기소설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1939년, 인문사 발행, 김남천의 전작 소설 〈대하〉, 1940년 발표된 한설야의 〈搭〉(『매일신보』, 1940.8.1.~1941.2.14.), 이기영의 〈봄〉(『동아일보』, 1940.6.11.~8.10 『인문평론』1940.10~1941.2. 1942년 대동출판사 단행본 간행), 김사량의 〈落照〉(『조광』, 1940.2~1941.1.1.), 이태준의 〈思想의 月夜〉(『매일신보』, 1941.3.4.~7.5).

6 김사량이 쓴 평론 3개(「조선문학풍월록」(1939. 6), 「조선문학추천관」(1939. 10), 「조선작가를 말한다」(1939. 11))에서 간략하게나마 김남천의 이름이 언급된다는 것은 그가 김남

하나 서로 교류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조선어 장편 <낙조>가 성립된 사정은 해석과 추론을 통해 접근해야 할 바로 보인다. 작가들 간의 현실적인 교류나 관계보다도 더욱 강력한 동기가 서려 있다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동기의 밑바닥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그들이 공유하는 기묘한 특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작가 모두 과도할 정도로 아버지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호웅이 지적했듯이 김남천의 문학에 ‘아버지’는 없다.⁷ 이는 김사량 역시 마찬가지다.⁸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침묵은 망각의 소치라기보다는 부정하려는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침묵의 깊이가 역설적으로 그들이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적인 것에 강력하게 사로잡혀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의 연장선상에서 이들이 창작 행보에 어떤 변환점을 마련하려는 시점에 집중했던 주제가 부권 형상과 관계되어 있다

천의 창작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타지마 테츠오, 「김사량 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3, 27면 참조.

7 물론 이는 김남천이 문학적 표상으로서 아버지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자신의 실제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지나칠 정도로 절제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아버지로 상징되는 다양한 가치들을 거부하려고 애쓴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정호웅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감당할 수 없는 증(憎)의 대상일 수도, 내밀한 열등의식의 원천일 수도 있는 그 아버지는 김남천의 문학 속에 없다. 김남천의 삶과 문학은 뿌리의 핵인 아버지를 무화시키고 난 빈자리에서 시작하였다. 이 사실은 중요하다. 그것은 (1) 김남천의 삶과 문학이 아버지로 표상되는 과거(전통, 집)로부터 벗어나 미래(이념, 새로운 집)를 향해 내달린 혁명적 정치성의 삶과 문학이고 (2) 김남천의 삶과 문학이 아버지(과거, 전통, 집)에 대한 탐구에 근거하지 않은 무조건적 부정의 삶과 문학이며, (3) 그러므로 김남천의 혁명적 정치성의 삶과 문학은 과거를 안고 그 속에서 새롭게 솟아오른 변증법적 지양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호웅, 『그들의 문학과 생애, 김남천』, 한길사, 2008, 14-15면.

8 평양 일대의 대지주였던 아버지 김태순은 김사량이 유년기에 작고한 것으로 보인다. 김사량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좀체 남겨 두지 않는데, 「고향을 생각한다」라는 수필 속에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적고 있을 뿐이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달리 마치 절벽과 같이 보수적이고 완고한 탓에 아무리 어머니가 책망하고 간청을 해도 결국 누님을 소학교에조차 보내지 않았다. 계집애에게 신교육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울고 소리쳐도 허사였다.” 김사량, 김재용 외 편역, 「고향을 생각한다」, 『김사량 작품과 연구 2』, 역락, 2009, 238면.

는 점 역시 이목을 끈다. 김남천이 2년간의 침묵 끝에 제출한 〈소년〉 2부작(〈남매〉, 〈소년행〉)에는 폭음과 폭력으로 무능을 표출하는 의붓아버지 학섭과, 사상운동에 기웃거렸다가 타락한 사나이 병걸⁹⁾이 등장하여 봉근의 가출을 매개하고 있다. 김사랑의 〈빛 속으로〉 또한 혼혈아를 돌보며 부권자 역할을 통해 자기인식에 도달하는 지식인 ‘남선생’을 내세우고 있다. 모두 굴절된 아버지 형상이다. 그리고 가족사연대기소설은 이러한 아버지의 형상을 탐구하는 근본적인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가족사연대기소설의 목적이 한 소년의 성장을 통해 조선의 당대 현실에 대한 기원을 탐구하는데 놓여 있다면, 핵심은 작품 속에 아버지의 형상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¹⁰⁾ 소설 속 인물들이 내면을 형성할 때 참조점으로서의 ‘아버지’는 큰 의미를 가지며, 아이가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곧 한 개인이 사회적 질서를 내면화하는 과정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족사연대기소설 속의 아버지는 소년의 성장을 관장하는 환경의 원리, 즉 김남천이 묘파를 시도했던 ‘조선적 특수성’을 형상화하는 방식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¹¹⁾ 아이의 성장을 살펴보려면 그가 어떤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었는지, 나아가 자신이 함몰된 환경 내지는 풍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적출할 수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이 메커니즘은 가족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와의 대결

9 소년 ‘봉근’의 내면에서 누이가 차지했던 위상을 미루어보면 그녀의 연인인 ‘병걸’이 무능한 부권형상의 일종이라 볼 여지가 있다.

10 아버지의 형상과 관련된 주제적 측면을 내보인 연구 중에 본 논문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논문으로는 가족사연대기소설에 작동하는 가족로망스 전유 메커니즘에 주목한(장성규, 「1930년대 후반기 소설 장르인식」, 서울대박사논문, 2012.)와 가족사연대기 소설 속 부권 형상을 작품 속 세계의 풍속 질서를 관장하는 원리로 보고 분석을 수행한(이혜령, 「1930년대 가족사연대기 소설의 형식과 이데올로기」, 『상허학보』, 제 10집, 2003.)을 들 수 있다.

11 “소설리스트 리얼리즘이 가지는 원리 위에 입각하여 지금의 이 땅의 특수성, 사유에 있어서는 아시아적 嬰退性 위에 서서 창작적 태도를 시대적 雲霧의 충실한 왜곡 없는 모사 반영으로 관찰시키려는 문학정신에 不外한” 것이다. 김남천, 「창작방법의 신국면」, 『조선일보』, 1937.7.10.-15), 『김남천 전집 1』, 239면.

로 표현되며 아버지를 극복하고 자신의 영역을 창조하는 방식으로 해소된다. 소설이 그려내고 있는 부권 형상은 소년의 성장에 개입되는 다양한 조건들을 거둬들이고 서열화하며, 나아가 평가할 수 있는 실질적 근거로 기능한다는 것이다.¹²

근대 사회의 주체는 자신들이 태어난 특수한 사회적 장소에 온전히 몰입되지 않으며, 다양한 ‘역할들’ 사이로 자유롭게 이동한다. 성별이나 종교, 재산 등 자신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스스로를 완전히 규정하지 않고 자신의 가장 내밀한 정체성에는 관계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¹³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조건들을 ‘나’라는 중핵 밖에 놓인 ‘우연적인 것’, 즉 객관화할 수 있고, 심지어는 분리될 수도 있는 무엇으로 감지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야말로 근대인이 성장을 통해 달성한 바일 것이다. 이는 아이가 상징적인 법의 모습에 미달할 수밖에 없는 경험적 아버지와 대결하며 이를 통해 그의 지배에서 분리되어야만 확보할 수 있는 심적 조건이기도 하다. 아이는 아버지의 욕망을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집을 떠나 길 위에 설 수 있다. 주체의 ‘고향-없음’이라는 내적 상태를 매개하는 것이 바로 부권기능의 핵심인 것이다.

12 정신분석학에서 ‘아버지’라는 개념은 다양한 의미층을 거느리고 있다. 단순하게는 피와 살을 지닌 실제 아버지를 뜻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언어로 지탱되는 질서의 총체를 뜻하기도 한다. ‘아버지’라는 개념을 상징적 질서를 지시하는 개념으로 볼 때, 이 질서는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주체가 내면화해야 하는 ‘상징적 법’으로, 또 다른 차원에서는 상징적 법의 이면으로 존재하며 공포와 금지를 통해 주체를 제약하는 ‘초자아적 작인’으로 이뤄져 있다. 프로이트는 『토텐과 타부』를 통해 이러한 ‘아버지’의 두 측면을 설명한다. 주체에게 존중해야 할 법과 질서를 알려주며 이를 통해 내면을 안돈하게 하는 아버지의 상징적 기능을 ‘토텐’으로, 주체에게 금지를 부과하고 전횡을 일삼는 무자비한 권력 기능을 ‘타부’로 제시한 것이다. 라캉은 프로이트의 논의를 이어받아 아버지의 두 측면이 아이의 성장과 맺는 관계를 ‘가족 콤플렉스’라는 글을 통해 규명했다. 그에 따르면 근대인의 내면은 부성적 기능의 두 측면이 실제적 아버지라는 하나의 동일한 인물로 통합되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은 슬라보예 지젝, 이성민 역, 『까다로운 주체』, 도서출판 b, 2010, 504면, 참조.

13 슬라보예 지젝, 앞의 책, 504면.

이에 본 논문은 아버지에 대한 강력한 부정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두 작가의 작품 속 아버지의 형상에 주목하려 한다.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부권기능) 개념을 통해 작가가 가족사연대기소설에서 자신의 주인공을 성장시키고자 구성한 세계의 논리를 규명함으로써 조선의 근대화에 투여하고 있는 그들의 해석적 욕망을 가시화하려는 시도이다.¹⁴ 김남천과 김사량은 소년의 성장 서사를 빚어내는데 있어 마치 세대론적 차이처럼 보이기도 하는 큰 폭의 인식론적 시차를 보인다.¹⁵ 본 논문은 아버지 형상을 그들이 극복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대립해온 것들에 대한 한 표현의 형식으로 설정하여 동시대에 놓인 그들의 차이가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 이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읽어내고자 한다.

2. ‘조선적 특수성’을 둘러싼 방법론의 긴장

2.1. ‘아시아적 퇴영성’이라는 도식

193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식민지 조선의 전통을 대상으로 삼는 지적 담론들이 성행했다. 이는 전시체제 파시즘과 관련성이 있는데, ‘내선일체’, ‘동

14 임형모의 경우 <대하>와 <낙조>에 사용된 알레고리를 분석하며 전환기에 대한 두 작가의 엇갈린 전망을 규명한다. 김남천이 애정관계를 통해 개화기에 접속했다면 김사량은 가족관계를 축으로 이를 드러내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관하여 임형모, 「알레고리로 읽는 전환기적 현실-김남천의 『대하』와 김사량의 『낙조』를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제 5집, 2008.

15 김남천과 김사량의 경우 3살 차이가 난다. 나이로 보자면 동년배로 분류되기에 세대론적 차이를 거론하기 위해 규명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그러나 김사량을 다른 카프 문인과 맞세움으로써 그의 세대적 감각을 밝혀내려는 성과는 있었다. 정하늬는 구카프계열인 한설야와 김사량의 가족사연대기소설을 비교하여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세대론적인 차이를 밝혀내었다. 정하늬, 「1940년 전후 가족사 소설의 세대론적 고찰-한설야의 『탑』과 김사량의 『낙조』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제 36집), 명지대인문과학연구소, 2015.

조동근, '일시동인' 등의 표어가 난무하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조선인의 정체성은 대동아공영권의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극복되어야 할 비문명적 기질로 규탄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피식민자들은 스스로의 정체성과 관련된 자질들-역사, '풍속', '문화', '언어' 등등의 '조선적 특수성' 혹은 '전통'-을 반성의 대상으로 삼아야 했다.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보편적 세계로의 도약, '반도인'이 세계시민으로서 강요된 '성장'을 해야 할 처지였던 셈이다.

잘 알려진 바대로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민족학을 통해 우리 역사와 민족의 특수성을 탐사했고, 사회주의 계열 지식인들은 마르크시즘 사회경제사를 통해 이에 접근해 들어갔다. 전체주의적 압력이 조선인에 대한 분석과 선언을 선점함으로써 '지금', '여기'에 어떤 형태의 구원이 요구되는지를 규정하려는 해석의 욕망을 경쟁적으로 산출해낸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김남천과 김사량이 작품의 주제를 세우고 형상화하는데 활용한 담론은 각각 이 두 갈래의 경향성에 대응한다.

김남천은 자신의 연대기적 서술 방식을 두고 "정황의 묘사를 전형화하고 그 묘사의 핵심에 엄밀한 합리성과 과학적 정신을 보장하겠다는 심사"¹⁶라고 강조한다. 나아가 조선적 특수성으로서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풍속에서 구하고 극복의 계기를 찾기 위해 역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¹⁷ 카프 해체 이전에 이념으로서 매진해왔던 담론을 아카데미즘의 중립적 지식체제로 환

16 김남천, 「현대 조선소설의 이념」, (『조선일보』1938.9.18) 『김남천 전집 1』, 박이정, 2000, 405면.

17 "지금의 조선의 문화 혹은 문학에 있어서 특수적인 것을 찾자면 사유에 있어서의 아세아적 퇴영성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물론 이 땅의 사회사에 있어서의 사회적 경제적인 특수성(아세아적 생산양식)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현재 우리의 문화현상에는 이것의 잔재(殘滓)가 구석구석 남아있다. 이러한 것을 과학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조선적인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계사적 입장에서 정당히 성찰하여 이 위에서 우리들의 문학이 급후의 발전책을 구하여보려는 것은 가장 정당한 태도이나 헛되이 고대에로 올라가서 역사의 왜곡과 주관을 가지고 '풍류성'을 발굴해놓고 이것에의 귀환을 부르짖는 등은 한낱 복고적 퇴영주의일 뿐으로 이것으로 인하여 현대의 문학은 일보도 전진하지는 못한다." 김남천, 「고전에의 귀환」, (『조광』1937.9), 『김남천 전집 1』, 박이정, 2000, 250면.

원하며 다시금 접속하고 있는 형국이다. 전향 이후 김남천으로 하여금 마르크시즘적 비전에 다시 몰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지식 담론은 바로 일본강좌파에 의해 격발된 아시아적 생산양식 논쟁으로 볼 수 있다.

조선의 사회경제사 연구자들 사이에서 ‘아시아적 생산양식’에 대한 견해는 일치되지 않았다. 세계사의 보편적인 발전 원리와 조선 역사를 연결하는 방식이 그 자체로 ‘지금’, ‘여기’의 최종요한 모순을 규정하는 방식이었으므로 ‘아시아적 생산양식’이란 신남철의 말처럼 “그것을 정당히 해석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동양의 사회적 경제적 구성이 어떠한 것이며 그 현실적 동향과 ‘운동’은 여하할 것이냐의 이론에 중대한 차이”¹⁸를 빚어내는 뜨거운 감자였다. 그리고 이 논쟁에 참여한 대표적인 논자들의 저서는 <대하>의 참고문헌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¹⁹

면면을 살펴보면 편목들 사이에 대립이 도드라진다.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의 경우, ‘조선사회경제론’을 주장한 스승 후쿠다 도쿠조(福田徳三)를 이론적으로 극복하려한 책이다. 후쿠다는 봉건제가 결여되었다는 조선 역사의 특수성을 식민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로 해석했다. 이에 백남운은 이 특수성을 억압하여 조선의 역사를 세계사의 보편적 발달단계에 부합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청원은 자신의 저서들과 평문을 통해 백남운의 역사 인식을 두고 “당파성을 벗어나 실천에서 유리된 상아탑속의 관념론자”라며 비판한다.²⁰

18 신남철, 「동양사상과 서양사상 양자는 과연 구별되는 것인가 (5)」, 『동아일보』, 1934.3.19.

19 “내가 <대하>를 위하여 읽어본 책자는 다음과 같은데 시골인 관계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적을 구할 길이 없어 그 수량은 지극히 빈약하였다. 인정식 씨 저 『조선농촌기구의 분석』/ 이청원 씨 저 『조선역사독본』/ 동(同)씨 저 『조선독본』의 일부분 / 백남운 씨 저 『조선사회경제사』의 일부분 / 성천읍지 두 권. 이 외에 풍속, 세태, 생활감정, 당시 교육 상황, 상품 종교 등 일체는 연로한 분들을 왕방하여 주석 혹은 좌담 등을 통해 얻어들은 말에 의하였다.” 김남천, 「작품의 제작과정」, 『김남천 전집 1』, 499면.

20 이에 관하여, 우대형, 「일제하 사회경제사학과 백남운」, 『사회와 역사』, 제 110집, 2016. 박형진, 「1930년대 아시아적 생산양식 논쟁과 이청원의 과학적 조선학 연구」, 『역사문예연구』, 제 38집, 2017. 참조.

행동을 위해서는 동시대 조선의 농촌을 제국의 자본과 봉건 유습의 야합에 신음하며 해방을 기다리는 공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날을 세웠던 것이다.

인정식 역시 『조선농촌의 사회기구』²¹를 통해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인정한다. 그는 조선의 정체성(停滯性)의 원인을 토지이용의 영세성에 놓고 토지조사령(1912)을 통해 유입된 일본계 독점자본이 조선 전래의 봉건적 생산양식과 결합하여 이를 유지, 강화시킨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전통’은 일본 국가주의와 등치되기 십상인 ‘보편성’의 자장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특수성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지켜내야 할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만 하는 퇴역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곧 조선인의 민족적 자질을 이루는 ‘전통’은 자본과 제국주의적 담론과 대치하는 순수한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서 생명력을 빌어다 쓰고 있다는 비판이다. 아버지적인 가치에 대한 강력한 부정의 지식담론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김남천의 견해가 그와 이념적 동지였던 인정식, 이청원 등과 친연성을 띠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총동원 체제 하의 현실에서도 여전히 마르크시즘에서 비전을 찾아내는 실천가로서의 태도, 당대 조선 농촌의 현실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실현될 공간으로 설정하기 위한 목적론적 의욕은 박성권 부자의 형상에 피와 살을 제공하는 도식이 된다.

가족사의 초석으로 근본 없는 신흥 부호로 하되 그 후 30년을 존명할 장년, 지주 겸 고리대금업자로 할 것. 이리하여 당년 40세의 박성권이 가장으로 선택되었다. 시대정신의 구현된 성격으로 발달하여 전통의 파괴자, 가족계보의 이단자를 청소년에서 구하되, 서자 학도로 할 것. 이리하여 박

21 이 책은 1940년 개정판으로 새롭게 출간된다. 이때는 인정식이 전향한지 2년 뒤다. 그의 이론 역시도 전향전과 달리 변화되었다. 이전에 그가 펼쳐놓은 영세성=반(半)봉건성이라는 등식이 포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김인수, 「이론연쇄와 전향-인정식의 경제론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제 96집, 한국사회사학회, 2012 참조.

성권의 3남, 서자, 19세의 박형걸이가 선발되었다.²²

박성권은 ‘근본 없는 신흥 부호’이자 ‘지주겸 고리대금업자’로서 한편으로는 자본의 재생산 메커니즘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근대적 자본가의 모습을 다른 한편으로는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관장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할당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박성권의 모습은 금력으로 참봉이 된 이력을 설파하고 있는 1장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으며 9장에 이르러서는 성천 고을의 적대자인 박리균 형제의 집문서마저 손에 넣으며 그 기세를 더한다. 이와 더불어 절게 두칠과 종간나 쌍네의 혼인을 종용하며 그들과의 전근대적 예속 관계를 관리하기도 한다. 이단자 박형걸은 이렇듯 근대성과 반(半)봉건성이 도식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중적 아버지와 대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2.2. 조선어 글쓰기와 민속학에 대한 전유

김사량의 경우 소설의 위기와 활로에 대한 김남천의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했으나 형상화의 층위에서 다른 경로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시대 담론장에서 벌어진 또 다른 문제에 공명했기 때문이다. <낙조>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를 ‘언어’문제로 꼽았다는 점은 일견 작가가 자신의 언어적 감각에 대해 내비친 겸사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이지만 당시의 문단 사정을 고려하면 더 적극적인 의미 부여가 가능해진다.²³ 1938년 시행된 ‘제3차 조선교육령 개정’에 따라 조선어의 입지가 위축되었고, 내지문단과 검열당국으로부터 ‘국어창작’에 대한 압력이 가속화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창작어’라는 문제는 이제 작가의 사적인 취향 혹은 무의식적으로 처리될 사안이 아니라 의식의 문

22 김남천, 「작품의 제작과정」, 『김남천 전집 1』, 499면.

23 “아직 일본말도 서툴고 또 부끄러우나마 조선말도 서툴러, 혹시 읽어 주셨는지 몰으나 조광 연재 <낙조>에서 말 때문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되도록 조선문으로 좋은 작품을 쓰게 된다면 나의 희망 그에 더함이 없습니다.” 김영식 편, 『과인 김동환 탄생 100주년 기념 작고 문인 48인의 육필서한전집』, 민연, 2001, 120면.

제, 아니 적극적인 ‘선택의 문제’로 부각되었던 것이다.²⁴

일본어로 문학을 한다는 사실은 김사량에게 하나의 명예이기도 했다. 일어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나의 것”을 쓰더라도 자연 ‘이그조틱’한 정체를 띠게 된다는 곡절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⁵ 일본어로 처녀작을 낸 1936년 무렵, 그는 동경제대 동인지 『제방』에 게재한 「잡음」이라는 수필을 통해 언어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

“써 가면서 새삼스레 난처한 것은 언어이다. 한 번은 문장에서 일본어를 없애 버릴까 하고까지 생각해 본다. 모국어를 가나 문자로 생경한 직역으로 옮긴다면, 과연 그것은 어떤 것인가.”²⁶

의도와 표현 사이의 어긋남을 심화시키는 ‘남의 말’로 창작하며 주체와 언어 사이의 분열이라는 인간의 근본적 조건을 명확히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일본어를 통해 창작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러움’ 혹은 ‘자동성’을 인지하는 언어적 감각이 굴절을 겪었다는 점이다. 일본어 창작이 저항을 하려는 의식적 노력을 동반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가는 경향성으로 설정되어 있고, 전통 혹은 자신이 지닌 조선인으로서의 자질들이 의식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들어설 수 있는 영역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뜻이다. 무의식

24 1938년 이후 조선어와 국어창작 사이의 긴장에 대해서는 윤대석, 「1930년대 말 임화의 언어론」, 『우리말글』 제 45집, 2009, 204면 참조.

25 “...조선어가 아닌 내지어로 쓰려고 할 때 작품이 아무리 해도 일본적인 감정이나 감각에 끌려가는 재앙을 초래하고 만다. 감각이나 감정, 내용은 언어와 결부된 후에 처음으로 기습속에 떠오르게 된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들은 조선인의 감각이나 감정으로, 기쁨을 알고 슬픔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표현은 그 자체와 불가분으로 맺어져 있는 조선말에 의하지 않으면 확연하게 떠오르지 않는다. ... 내지어로 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작가가 의식하고 있든 아니든 일본적인 감각이나 감정으로 이행하여 휩쓸려갈 것 같은 위험성을 느낀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쓴 것이면서도, 이그조틱 한 것에 현혹되기 쉽다.” 김사량, 김재용 외 편역, 「조선문화통신」, 『김사량 작품과 연구, 2』, 역락, 2009, 338-339면.

26 김재용, 곽형덕 편, 『김사량, 작품과 연구 2』, 역락, 2009, 159면.

적 경향성의 방향이 전도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김사량의 조선어 글 쓰기는 김남천이 지적한 작가의 ‘편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있다.²⁷ 그는 모국어조차도 일본어만큼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우연적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원초적인 창작의 토양이 될 수 없다는 전제 위에서 활동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창작어로 모국어를 선택했다는 것은 김사량에게 그 자체로 ‘조선적 특수성’에 접근하는 방법론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빈약한 방법론에 그칠 수밖에 없는데, 창작언어는 공식적 담론장과의 교섭에서 선택한 텍스트의 선형적 형식일 따름으로 그것만으로는 형상화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김사량은 조선의 설화를 차용하며 자신이 구축할 세계에 통시적 깊이와 질서를 부여하고 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바로 그것이다.

소설의 서사적 측면에서 이 민담은 주인공 수일이 새롭게 가족이 된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평양에서 어머니 산월과 수일은 어떠한 불안도 없이 이자 관계로 결속되어 있다가 윤성효의 갑작스런 방문으로 교란되고 결국엔 파국을 맞는다. 수일은 아버지를 알 수 없고, 무서운 대상으로만 인지한다. 이때 산월이 수일에게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갑작스럽게 형성된 반가(班家)의 부-모-자 삼자 관계를 이해할 도식을 제공한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 모티프는 작품 전체에서 계속 해서 반복된다.²⁸ 사건과 인물들 간의 구도 역시 민담의 열개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호랑이가 어머니를 잡아먹고 남매를 위협하는 설화의 내용은 산월의 죽음에 이어 귀애와 수일이 윤성효의 전횡에 노출되는 구도와 합치되기 때

27 “작가 자신의 기억을 이용한다는 편의적인 생각과 작자 자신을 돌아본다는 회고정신에 의해서 연대(年代)의 정신은 명확히 형상화되는데 장애를 받고 있다. ... 이러한 편의적인 생각이 신인 김사량씨의 「낙조」에도 나타나 있었다는 것은 일고 해볼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김남천, 「산문문학의 일년간」, 『김남천 전집 1』, 박이정, 2000, 692면.

28 <해와달> 모티프는 <낙조>의 4장에 처음 제시되며 5장, 12장, 15장, 18장, 19장에서 변형대로 반복적으로 암시된다. 수일의 신변상의 변화나 상대 인물과 관계상의 전환이 일어날 때에 삽입되어 있어 작품 전체의 기본적 도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이다. 이렇듯 설화를 하나의 알레고리로 활용하며 인물의 관계나 운명을 표현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낙조〉는 개화기 풍속에 대한 정치한 재현보다는 피식민지의 소년이 주체화 과정에서 봉착하게 되는 내적인 장애들을 탐사하는데 관심이 놓여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조선어로 작품활동을 해왔던 증견작가의 눈에는 간접화된 주제 의식보다는 언어의 미숙함과 과학적 인식의 결여가 도드라져 보였다.

주인공 윤수일과 그의 소년시대의 설정은 기억의 이용 이외에 타의(他意)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작자의 기억이나 상고(詳考)가 또한 여간 엉망이 아니다. 풍속 습관에 대해서도 전맹(全盲)에 가깝지만 언어에 대한 관심도 여간 허술한 것이 아니다. 가령 맨 첫 장면을 보라. 작자에 의하면 1910년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윤대감은 궐부(厥父)의 횡사(橫死)를 듣고 서울로 급행할 때에 승교(乘轎)라는 느린 물건을 타고 ‘사무라이’처럼 달아나고 있다. 이미 경의선의 철도가 부설된지 7,8년이 된다. … 수일의 대화를 보면 작자가 지방어의 뉘앙스를 의도한 것이 사실인데, 평안도 사투리를 살리려면 영남 사투리와 서울말을 알지 못하고는 불가능한 것을 써는 잊어버리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어린아이란 타처(他處)로 반이(搬移)해 가면 반년 안에 본토어를 버리게 된다는 상식도 잊어버리고 있다. 이대로 가면 윤수일은 아마 30이 넘어도 평양 사투리를 쓰고 있을 것이다. 동경서 활약한다는 소문이 자자한 김씨가 언어에 대한 감각이 이처럼 무딘 줄은 알지 못하였다. 이 방면에 대한 심심(深甚)한 자각이 있어야 할 것이라 믿는다.²⁹

김남천에게겐 김사랑이 그려낸 개화기의 모습은 왜색(倭色) 짙은 모조품에 지나지 않았다. 교환되는 언어조차도 인간의 기본적 발달과 유리되어 있고 묘사의 심도 역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설의 완성도를 기준으로 놓는다면 김사랑의 작품은 ‘사실적’이지 못한 범작에 들 것이다.³⁰ 김남천이 〈낙조〉를 야

29 김남천, 「산문문학의 일년간」(1941), 『김남천 전집 1』, 박이정, 2000, 692-693면.

30 ‘사실’이라는 용어를 김사랑의 언급 속에서 짚어보자면 ‘진실’에 더 가까운 방식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쿠타가와상 후보작에 지정되어 소회를 밝히는 글에서 김사랑

박하게 평가한 바는 물론 작품의 수준과 가장 크게 관련되어 있겠지만 작품의 지향과 방법론에서 동류의식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점 역시 지적할 수 있다. 먼저 김사량이 활용하고 있는 설화, 산월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면 풍속 등은 육당과 같은 민족주의 진영의 민속학자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탐구되어왔던 대상인 바, 리얼리즘 정신과 무관한 소재로 보였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조선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는 ‘전통’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차이를 보이는데, 김남천 등이 그것을 극복과 탈주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면 김사량은 연민과 인내의 태도를 내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인식의 낙차가 드러나고 있다.

서로 까마득히 먼 장소 태어났으면서도, 다른 나라의 말로 글을 썼기 때문에 귀형과 이렇게 새로운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도 기쁩니다. ... 귀형도 문학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일이 더군요. 자신의 피에 흐르고 있는 전통적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말하면 결국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적으로 거부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것을 충실하게 살려가면서 자신의 문학을 새롭게 세워야만 하겠죠. 저도 통절히 느끼는 바입니다. ... 귀형은 저 모순(矛盾)이라는 작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뛰어난 작가는 아닙니다만 확실히 좋은 작가인 것 같습니다. ... <빛 속으로>에 대한 귀형의 비평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언젠가 그 작품을 개정할 수 있을 때가 오기를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작품은 아닙니다. 역시 내지인 취향입니다. 저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

은 자신이 <빛 속으로>를 통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고백하며 “더 사실된 것”을 쓰겠다는 다짐을 적고 있다. <빛 속으로>에서 남선생은 “아버지적인 것에 대한 조건 없는 헌신과 ‘어머니 것’에 대한 맹목적인 거부”에 시달리고 있었던 혼혈아 야마다 하루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었고, 이 서사적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이 작품 속에서 피식민자의 내면에 얽힌 상처를 성급하게 봉합해버린 것을 반성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낙조>는 개화기를 복원한다는 의욕은 약화되어 있다. 피식민지인의 성장 가능성과 정체성 문제에 대한 탐구로 해석되길 바랐을 것이라 유추해볼직하다.

문에 두렵습니다.³¹

전통에 대해 김사량이 사용하고 있는 수사를 보자. 전통을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것’, ‘결국 소중한 것’, ‘의식적으로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 ‘충실히 살려 나가야 할’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해소되지 않는 거리감을 의식하면서도 연민을 품고 접근하려는 노력을 쉬지 않겠다는 작가적 태도가 엿보인다. 김남천과 인정식 등이 과학적 언어로 조선적 특수성을 번역하며 탈주의 욕망을 내비치는 편이라면 김사량은 전통을 수치나 진리의 언어로 환원되지 않는 특질로 보고 있으며—‘피에 흐르고 있는 정신’과 같은 표현이 이를 방증한다—, 오히려 거부하지 않고 내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쪽에 가깝다.

이처럼 두 작가가 조선적 특수성에 소설을 통해 접속하려는 시도는 두 가지 방법론적 경로로 분화되어 수행되고 있으며 그 사이에 긴장이 감돈다. 그리고 이 긴장은 곧 두 사람이 창조한 세계의 원리에서, 주인공의 성장에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는 두 ‘아버지’의 형상에도 차이를 빚어낸다. <대하>의 박성권과 <낙조>의 윤성효는 각각 형걸과 수일에게 어떤 심적 조건을 매개했던가. 표면적인 결과만 놓고 보자면 형걸은 박참봉에 반기를 들고 탈가했으며 수일은 집안에 메여 지내는 열 네 살 꼬마신랑으로 끝난다. 형걸은 성장할 수 있었고, 수일은 자라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 다 서자(庶子) 출신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형걸은 적자(嫡子)의 지위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탈가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수일은 가독(家督)을 물려받을 장자로 승격되었음에도 도무지 성장을 모르는 소년으로 남았다. 조선적인 특수성에 대해 두 작가가 내보이고 있는 태도와 소년들이 도착한 지점이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3. 성장과 미숙의 동일성

31 김사량, 김재용 외 편역, 「김사량이 대만작가 룽잉쥬에게 보낸 서간」(1941.2.8), 『김사량, 작품과 연구 4』, 역락, 2014, 409-410면.

3.1. 욕망하는 아버지와 교환되는 소년

〈대하〉의 박성권이 부자가 된 이력은 1장에 등장한다. 그는 이 짧은 지면 속에서 2번이나 자신의 계급적 위치를 수정하고 있다. 박성권은 ‘갑오년 난’을 통해 치부하는데, 홀로 병대를 좇아 자산, 순천, 평양, 황해도 등을 내왕하며 군수품 행상으로 밀천을 장만한다. 그리고는 이때 얻은 은전을 악착스럽게 모아 숨겨둔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토지를 사들이고 돈놀이를 하며 재산을 불려나간다. 상업자본가의 초보적 단계에서 곧바로 수전노의 형상을 거쳐 자연스럽게 금융자본가와 지주를 겸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이라는 전근대적 경제체제를 규정하는 〈상품-화폐-상품〉의 비순환적 유통 구조를 ‘갑오년 난’을 통해 〈화폐-상품-화폐〉라는 무한한 자본의 순환 운동으로 변화시킬 권능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박성권네 후간, 토굴처럼 으스스하고, 바윗돌처럼 굳은 담벽으로 둘러싸인, 그닥 크지 않은 두 칸에, 한 절반씩 땅을 파고 들여놓은 커다란 독이, 세 개가 있는 것을 아는 이는 하나도 없었다. … 갑오란에 엮인 몇냥씩과 바꾸어서 모은 그 은전을, 그는 이렇게 깊게 간직해두었던 것이다. … 좋은 날이나 눈이 날 때마다, 은값이 센 것을 보면 조금조금 은전을 팔아서, 남의 눈에 들지 않게 토지를 샀다. 한편 돈놀이를 무섭게 하였다. 기일에 들여놓지 못하면 집이고 토지고 사정없이, 다 췌어 들였다. 집 시세는 얼마 보잘 게 없으므로 대개 토지를 잡았다. 세간이 아직 넉넉하고 땅덩어리나 가지고 있는 집이라면, 일년 만에 이자를 꼬아 매고 꼬아 매고 하여, 이삼 년 안팎에 원금보다 이자가 몇 곱이 되게 만들었다. 그의 재산은 눈 위에 굴리는 눈덩어리처럼 불어나갔다. 그러나 그가, 이 바닥에서 갑부라는 것을 아는 이는 적었다.³²

32 김남천, 『대하』, 푸른사상, 2013, 14-15면.

박성권은 자신의 금력을 통해 고을 사람들로부터 ‘참봉’이라는 전근대적 권위를 얻어내고, 이와 더불어 그의 아들 형제들에게 ‘항렬자’를 써 제대로 된 이름을 부여한다. 아버지의 경제적 성공이 자연스럽게 봉건 유제 속에서 가족 구성원의 자리를 할당하는 권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돈’은 박성권에게 구시대적인 것들을 뒤로하고 새 시대로 나아갈 수 있게 떠미는 힘이 아니라 ‘전통’으로 회귀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든든한 기반으로 작용한다. 돈 덕분에 그는 뒤로 간다. 그리고 이 방향성은 성천이라는 공간이 지닌 독특한 특성에 힘입은 바도 크다. 그곳엔 이러한 박성권의 상승을 견제할 어떤 양반도 없는데, 틈만 나면 문중의 성씨 열녀 운운하는 박리균 형제만이 양반 행세를 하고 있을 따름이다. 봉건적 질서를 관장하는 관리자의 자리가 비어있는 동리였다는 것이다. 이기영의 〈봄〉에는 ‘갑오난’이 한참 지난 후에도, 심지어는 제대로 된 양반이 없다는 방개울(民村)에 양반이라는 신분적 우위를 근거로 마을 공동체에 군림하는 유춘화가 등장한다. 민촌이 양반의 권위를 내세워 산지기를 매질하는 아버지의 위엄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점을 배경으로 삼으면 박성권이 놓인 마을의 구도는 창작에 개입된 작가의 목적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³³

이로써 박성권은 봉건적 예측 관계를 통해 영세민에게 착취한 자금으로 자본가로 전화할 수 있었던 윤성효와는 정반대 행보를 지닌다. 그는 정확히 자본 재생산의 매커니즘을 통해 봉건적 신분 체계 속에 자리잡는다. 이렇듯 신분질서가 교란되던 구한말의 전형성이 박성권에게 ‘반영’되어 있다. 전술했던 맥락과 같이 ‘전통’과 ‘자본’의 종합에 대한 역사적 감각이 김남천이 〈대하〉를 통해 발견하고 싶어 하는 ‘아시아적 퇴역성’에 박성권이라는 육체를 부여했고, 곧 소설 속 세계의 형성 원리로 표현된 것이다. 김남천은 〈대하〉 1장에서 박성권

33 성천 땅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양반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정은 다소 현실성이 결여된 구도로 풀이될 수도 있지만 소설의 배경인 ‘성천’이라는 고장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천은 하나의 광업도시로서 노동자인 젊은 인구의 유동이 잦았고 자본 유통이 활발했던 바, 일본 자본주의와 매우 성공적으로 결합하며 빠르게 근대적인 모습을 갖춘 공간으로 도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관하여, 류수연, 「김남천 소설과 ‘성천(成川)」, 『한국학연구』, 제 59집, 2016, 72-76면.

의 치부 과정을 보여주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간단히 제시한다. 이는 박성권의 도약이 소설의 주제가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서사의 시간적 배경을 정립하고 형상화 노력을 집약하려는 작가적 의도의 산물일 것이다. 그러나 이 소략함 덕분에 박성권이 지니고 있는 반(半)봉건적 아버지 형상은 그 균형이 매우 쉽게 흔들린다.

서사가 진행될수록 이후 박성권의 모습에서 유교적 윤리체계의 영향력은 급속히 탈색된다. 형선과 정보부의 결혼 이후부터 운동회에 이르는 서사적 과정의 대부분에서 그는 합리적 판단을 통해 자신의 가산과 식솔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유능한 근대적 가장의 모습을 내비친다. ‘술은 취하여서도 돈과 밭과 집안 가도와 자식들을 잊지 않³⁴’으며, 서자인 형걸을 셋째로 부르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하여 딱히 정실의 아들에 비해 사랑을 덜 주지도 않는다. 사실 보부형걸 사이의 혼사 장애 역시 박참봉의 탓이 아니라 형걸의 어머니 윤씨의 설레발 덕분에 발생했다. 윤씨도 “영감이 적자나 서자를 그다지 차별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로 가장 박성권을 비호한다. 뿐만이 아니다.

그가 가족의 안위를 앞세우는 부르주아 핵가족의 ‘좋은 아버지’ 임은 그가 이성과의 성적 관계에 매진하지 않는다는 데에서도 확인된다. 쌍네는 형걸, 형준, 두칠 등이 모두 매력을 느끼는 미모의 여성이다. 그러나 그녀의 성적 매력은 박성권에게는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물론 그 역시 소설책을 들었으나 가산의 규모에 따라 방당한 관계를 만들지 않고 중년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욕망을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매우 능숙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의 정실은 남편이 쌍네를 건드릴 것을 걱정하였으나 오히려 박성권은 혼기를 놓친 두칠의 사정을 헤아리고 그의 욕망을 관리하기 위해 쌍네를 이용한다. 그녀의 성적 매력은 박성권의 합리적 타산 앞에서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좋은 아버지’로서의 박성권의 형상은 15장 대운동회를 기점으로 붕괴된다. 그는 기부금을 500냥이나 희사하고 대운동회 부회장 직함을 달았다.

34 김남천, 앞의 책, 21면.

생원, 죄수, 진사 등을 제치고 얻은 자리라 유쾌함을 만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기쁨도 잠시, 박성권은 대운동회를 관람하며 자신의 사회적 성취와 괴리된 욕망을 자각하기 시작한다. 달리기와 기마전에서 분투하는 형걸의 모습을 보며 “재산 모으기에” 바친 “이십 년 동안, 그는 모든 젊음과 열락을 버렸던 자기를 지금 새삼스럽게 발견”³⁵하게 된 것이다. 그리곤 2등상을 받으러 사열대로 걸어오던 형걸의 시선에 걸린 부용까지 발견한다. 그는 그녀에게 매혹된다. 그동안 이성의 성적 매력에 무심했던 박성권이 운동회에 이르러 어떤 전환을 맞게 된 것인데, 지적해줄 점은 부자의 역할 관계가 이때 전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의 욕망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의 욕망을 학습하는 관계로 말이다. 이때 박성권은 경쟁자로서 아버지의 형상을 갖추게 된다.

형걸은 부용의 기방에서 그녀를 유혹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는 사랑을 단념하고 문우성이 있는 예배당으로 힘차게 걷는다. 탈가인 것이다. 이 대목에서 〈대하〉의 참주제는 근대여명기에 욕망하는 아버지를 창조하는데 있다는 점이 가시화된다. 실상 형걸이의 ‘성장’은 표면적인 논리요, 내면을 발견하고 주체화 과정을 겪는 이는 박성권이었던다는 점이 뚜렷해지기 때문이다.

형걸의 경우 처음부터 왕성한 활동력과 생명력을 자랑하는 인물로 제시되며, 충동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여성을 전전하다가 이내 단념하고 문명개화로 자신을 인도할 문우성에게 나아간다. 이는 그가 아버지와의 관계 내지는 서자라는 자신의 처지와 격렬한 투쟁을 벌이며 선택한 행위라기보다는 생득적 생명력의 표출인 ‘반발심’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그는 장정 3명을 상대할 만큼 장사지만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형제들과 이렇다 할 갈등을 만들지 않는다. 물론 부용과의 연애 관계는 그가 쌍녀와 맺었던 육체적 관계보다 심화된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탈가를 이끌어낼 동력으로 충분하다는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이는 형걸이 그동안 맺어왔던 연애 관계의 범위를 따져보면 달리 보일 것이다.

김남천이 형걸의 성장을 매개할 장치로 박성권 외에 하나 더 준비해둔 것이 연애이다. 이 연애의 장애를 통해 형걸의 리비도는 가족이라는 동심원에서 순

35 같은 책, 267면.

차적으로 멀어진다. 첫 번째 성애의 대상으로 설정된 정보부의 경우 둘째 형의 아내로 박성권의 가부장적 권능 내에 놓인 인물이며 두 번째, 성애의 대상은 쌍녀로 그녀는 박성권 거느리고 있는 유사-가족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다. 마지막 대상인 부용은 가족 범위 밖에 위치해 있다. 이처럼 그의 섹슈얼리티가 수행되는 장소는 가족의 권역 내에서 점진적으로 밖을 향해간다. 박성권의 상징적 권위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형걸이 가문의 울타리 밖에서 성애의 대상을 구하자마자 박성권이 자신의 욕망을 발견하고 부용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형걸의 사랑이 그녀를 향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할 의무라도 있는 듯이 말이다. 마치 <대하>의 연애 시장을 관리하는 감독관 인양 행동하며, 자신의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난 친밀성의 교환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이 지점에서 박참봉은 그동안 자신이 지녔던 상징적 권위를 벗고 결여 내지는 욕망을 드러내며 형걸로 하여금 탈가의 명분을 마련하도록 한다.

운동회와 형걸의 가출 사이의 시간적 거리는 협소하다. 아버지 형상의 급격한 변동과 형걸의 탈출은 거의 맞물려 일어나며 형걸이 아버지의 행위를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가늠할 수 있는 반성의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덕분에 형걸이 아버지와 맞서는 논리 역시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의 대결 의식이 서자인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존속시키며 욕망에 한계를 부여하는 전통적 가족제도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체통을 잃고 자신의 욕망을 유보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무능을 향하고 있는지 분명치 않다. 스스로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형걸은 스스로 집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분열을 겪지 않은 긍정적인 인물’로 보이기보다는 소극적 반발심에 사로잡힌 유약함을 품게 되었다.³⁶

형걸이 다양한 여인들을 거치며 섹슈얼리티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근거는 건

36 김남천은 자신의 평문에서 <대하>의 한계를 분명하게 시인한다. “1. 심리의 현대화, 2. 성격창조의 유약성, 3. 풍속 현상의 공식적 배치” 김남천, 「양도류의 도량」, 『조광』 1939.7), 『김남천 전집 1』, 박이정, 2000, 514면.

장한 육체가 그에게 부여하는 생명력과 ‘서자’라는 신분적 한계 덕분에이다. 가독 승계의 권리도, 봉제사의 의무도 없는 가벼운 몸이었기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전근대적 세계 속에서 자유롭게 유명하며 다양한 여성들을 미끄러져 나아가는 서사적 과정을 조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 여성 인물들이 새로운 내면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에서 형걸이라는 인물이 <대하>의 세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분별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대하>를 형걸이 보부, 쌍네, 부용 등을 놓고 여타의 인물과 대립한 서사로 이해할 때보다, 반대로 보부, 쌍네, 부용 등이 서로의 욕망의 시장 경제 속에서 상품으로 소유하려고 했던 형상이 바로 형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는 것이다. 각각의 여성들은 형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놓인 전근대적 습속과 스스로를 분리하는 내면을 형성하게 되기에 그렇다. 역설적으로 박성권의 탈선과 형걸의 탈가가 자연스럽지 못한 귀결로 인지되는데 반해, 형걸과의 연애망에 노출된 여성은 자연스럽게 김남천이 작품의 한계로 지적한 ‘심리의 현대화’로 이행되고 있으니 말이다.

<대하>의 세계를 욕망과 정동(affect)의 교환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장 경제의 공간으로 환원한다면 봉건적 생산관계와 금력을 이용하여 인물들 간의 교환형식 설정할 수 있는 박성권은 당연히 시장의 질서를 관장하는 자본가의 역할을 할당받은 것이고 형걸은 소비자로 볼 수 있는 여인들 사이에 교환되는 상품으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형걸의 가출은 가족 체계라는 욕망의 폐쇄적인 순환공간을 빠져나가 자본으로 전화되는 화폐의 형상과도 상동성을 띠고 있다. 아비와 대립하고 여인들을 전전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가 자신의 ‘생득적 기질’과 정면으로 대립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해본다면 형걸의 탈가는 인물의 관성과 서사적 정합성 속에서 빚어진 주체적 사건이라기 보다는 작가의 목적론적 지향과 아버지 형상의 도식성이 선사한 ‘선물’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3.2. 원초적 아버지와 영원한 아이

〈낙조〉에 드러난 아버지의 형상은 여타 김사량의 소설에 등장하는 그것에 비하여 이채롭다 하겠다. 주인공 윤수일의 아버지 윤성효는, ‘숙부’나 ‘선생’과 같은 이형태로 제시되지도 않거니와, 초점인물의 시각장에서 벗어나 있는 부재 인물로 축소되지도 않는다. 그의 존재는 확고하고 뚜렷하며 전면적이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김사량의 소설 속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을 요한다. 결과적으로 윤성효의 이러한 특질은 주인공 수일로 하여금 〈빛 속으로〉의 야마다 하루오와는 정반대의 심적 갈등을 겪게 한다. 야마다 하루오가 “아버지의 것에 대한 조건 없는 헌신과 어머니의 것에 대한 맹목적인 거부, 그 두 가지”³⁷ 상극에 시달리고 있다면, 수일은 정반대로 ‘아버지의 것에 대한 맹목적인 배가와 어머니의 것에 대한 조건 없는 헌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인물로 그려지긴 두 작품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전자가 언젠가는 빛 속으로 나아갈 야마다 하루오를 긍정하고 있다면, 후자는 수일이 결코 빛 속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일본어 창작장에 몰입했을 때 발견되는 南선생과 같은 상징적 권위를 나타내는 아버지의 형상이 〈낙조〉에서는 매우 축소되어 있음과 연결된다.

윤성효는 비대한 몸피로 자신의 활동성을 과시하는 부정적 인물로 제시되고 있다. 그가 실제로 하는 행위—친일, 축첩, 관민탄압, 투기에 따른 축재 등등—와 그가 누리고 있는 권력 간의 낙차는 아들 수일에겐 이해하기 힘든 특질로 보인다. 수일은 윤성효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동일시해야 할 어떠한 가치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행동과 그 권위 사이의 간격에 당혹스러워 할 뿐이다. 이는 윤성효라는 아버지는 결코 수일이 자신의 욕망을 투사할만한 특질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하며 나아가 윤성효는 수일에겐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해와 달〉 설화는 전술한 것처럼 수일로

37 김사량, 김재용 외 편역, 〈빛 속으로〉, 『김사량, 작품과 연구 3』, 2013, 29면.

하여금 불가해한 특질로 강고하게 현전하는 아버지의 형상을 이해할 도식으로 등장하며 윤성효는 호랑이라는 항에 배치된다.³⁸

〈해와 달〉 설화는 아버지의 형상을 호랑이로 제시되는 폭력적이고 잔혹한 초자아적 형상과 동아줄을 내려주는 상징적 법으로서의 하느님 형상으로 분화하여 드러낸다. 주목을 요하는 것은 호랑이의 기능인데, 단순히 의외해야 할 악의 형상이나 배제할 요소로 해석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건을 주도하는 측면에서 보면 호랑이는 주인공이 되어야’하며,³⁹ 나아가 남매가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어 하늘에 올라 실체를 변환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에 그렇다. 남매는 호랑이와 지혜를 겨루며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종국엔 승리하게 되므로 이 설화의 서사적 골격은 아이의 성장에 대한 상징적 도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장을 매개하는 호랑이의 모습은 윤성효에게 발견되지 않는다. 난폭한 침탈자의 모습을 공유하고 있으나 남매의 성장을 독려하는 매개적 기능이 삭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역시 박성권과 같이 가문의식이라는 봉건적 유

38 김사량은 알레고리로서 호랑이를 자주 활용했다. 일본에는 호랑이가 서식하지 않기에 호랑이는 그대로 조선, 내지는 조선인의 기질들을 환기하는 표상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신의 신들(山の神々)〉(1941), 〈호랑이 수염(虎の鬚)〉(1941) 등에서 호랑이를 소재로 삼은 작품들이다. 김사량은 이 작품들 속에서 호랑이를 조선인의 특질들, 제도나 인종 관계 속에 명쾌하게 분류될 수 없는 습속을 표현하는 표상으로 활용하고 있다. 〈산의 신들〉은 호랑이를 토렘처럼 취급하는 온천 주인과 이용객들의 문화를 소재로 삼고 있고, 〈호랑이 수염〉은 미국 영토인 일본에서 양반이라는 자신의 신분적 특권을 주장하는 기묘한 조선 노인의 형상을 호랑이라는 상징을 통해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호랑이를 조선인의 표징으로 사용하는 것은 김사량만의 독특함은 아니다. 육당 최남선의 경우, 이미 1926년 여름에 호랑이를 우리 민족의 토렘으로 규정하기 위한 민속학적 기획물을 연재한 바 있고, 당시 일본에서 유통되던 다양한 조선문화 관련 텍스트의 표지도 호랑이 형상을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육당의 연구는 호랑이를 조선민중이 숭배하는 ‘도렘’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김사량의 용법과 인접한 자리에 놓일 수 있다. 최남선의 호랑이 표상 연구에 관하여 박은정, 「호랑이의 조선표상화와 육당 최남선」, 『동아시아문화연구』, 제 61집, 2015 참조.

39 김기호, 「트릭스터 그리고 성장의 매개자:〈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호랑이」, 『한민족어문학』, 제 42권, 2003, 293면.

제에 침잠해있으며,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가산을 불려나가는 ‘유수한 근대적 자본가’⁴⁰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박성권이 타산적 판단을 통해 스스로의 욕망을 관리하는 합리적 아버지의 형상을 품고 있다면 윤성효의 경우는 자신의 욕망을 관리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을뿐더러 해주집과의 관계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축되며, 산월에게는 절대 권력으로 군림하며 복종을 강요할 뿐이다. 이 모습들을 매끄럽게 종합 하는데 수일은 늘 실패하고 만다. 그래서 윤성효의 그늘 아래 수일은 언제나 ‘3월 1일의 밤’과 같이 결국은 찾아올 파국의 조짐에 의해 항상 도사리며 지내게 된다. 윤성효는 수많은 강권과 전횡으로 수일의 마음을 멍들게 한다. 그러나 수일은 이에 반항하지 않고 늘 체념적으로 사태를 수용한다. 심지어는 탈가의 명분이 될 수 있는 결혼마저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치러낸다. 이처럼 윤수일의 욕망은 윤성효 앞에서 작동되지 않으며 닫혀있다.

우리 주인공의 아버지 윤성효는 참으로 이상한 인물이었다. … 다만 그 어지간히 큰 몸집은 좀 비(肥)지어 깨끗지 못한 인상을 주기도 하나 그러나 묵직한 입과 무엇인가를 늘 궁량하는 듯한 눈은 사람을 넉넉히 위압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더욱이 그의 킁킁한 과거와 불요불굴(不撓不屈)의 피는 때로는 남의 등줄을 쭈뼛하게까지 한다. … 어쨌든 이만한 전설의 주인공까지 될 만큼 하고 킁킁도 하고 욕심도 남달리 사납고 참혹스러이 몹쓸기까지 하다. 다행히 우리의 수일이가 그를 범이라고 불렀으니 범을 빌려 논 지하자면 표범의 잔악을 품고 호랑이가 깊은 숲에 몸을 감추고 있는 격이다. 그러나 용의주도하게 사면을 살피고 한번 숲을 나오기만 하면 소기(所企)를 향하여 돌진 맥진하는 성미였다.⁴¹

〈낙조〉를 통틀어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사람은 산월, 석순철, 귀에 정도이다. 산월은 수일에 대한 사랑과 피해망상증 사이를 오가는 인물로 기

40 김사량, 〈낙조〉, 앞의 책, 174면.

41 같은 책, 93면.

복이 심한 감정선을 지니고 있으며 우울과 자살충동이 시달린다. 심지어 수일이 학업을 위해 작은 아버지 집으로 옮겨간 뒤, 아들을 이끌고 단애에 올라 동반자살을 하려는 의지를 내보이기까지 했다. 그만큼 아들과의 분리를 견뎌내지 못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어 수일의 성장에 관여한다기보다는 되려 퇴행을 장려하는 모양새이다. 석순철은 수일에게 자신의 꿈이 ‘사상가’라고 밝힌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살이를 하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이 소년은 자존심이 세고 나름의 정의감도 지니고 있다. 친일파의 아들이라고 따돌림을 당하는 수일의 유일한 벗이 되어주기도 한다. 자신도 아버지와 같은 ‘사상가’가 되리라던 순철의 모습은 일견 수일로 하여금 모종의 지향을 꿈꾸게 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곧 평양으로 전학을 가며 수일 곁을 떠난다.

귀에는 산월의 사랑과 순철의 의지가 결합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엄밀히 말해 〈낙조〉에서 수일에게 ‘상징적 아버지’의 기능을 환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물은 귀에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는 수일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수일과 어머니의 관계를 매개하고, 나아가 이른바 ‘사상가’와 같은 어려운 말의 뜻도 제 나름 펼쳐 널만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수일 모자가 서울로 이사해온 때로부터 작품의 말미까지 수일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오며 수일이 필요로 할 때, 수일의 친구로서 그의 곁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그러나 이런 그녀의 위상은 산월의 죽음 뒤에 변화를 겪게 된다. 14장이 산월의 죽음으로 끝난 뒤 이어지는 15장 서두를 다음과 같은 서술자의 언급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는 수일에게는 절망의 그림자가 뒤따라 그 일상생활은 회로애락을 멀리 초월한 일종 허탈에 가까운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누군가 면매를 하거나 매질을 하거나 욕지거리를 퍼붓거나 – 이리 하여 어떤 의미로는 그에게는 자기를 힘차게 끌어 인도하는 강력한 존재가 필요했다.⁴²

42 같은 책, 159-160면.

그러나 수일이 존경하며 따랐던 석순철은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 평양으로 옮겨가며 ‘힘차게 끌어 인도하는 강력한 존재’가 되어줄 수 없었다. 이후 수일은 아버지의 명에 따라 다시 본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는데 3년 만에 만난 귀애는 그 이전의 귀애와는 달라져 있었다. “희미한 달빛으로나마라도 수일이는 첫눈에 아주 어떤 일종의 압박과 거리를 느끼고 말았다. 이 몇 해 동안을 서로 만나지 못한 사이에 귀애는 이제는 흰 양치럼 듬뿍하게 성숙하여 거기는 쌀쌀한 위엄까지 서리어 있는 터이다.”⁴³ 이와 같은 묘사는 이제 귀애가 소설 속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변동이 발생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산월이 죽음으로 퇴장하고 난 뒤, 이어지는 15장에서 묘사된 귀애의 모습은 수일의 심정 구조 속에서 귀애가 차지하고 있던 위상이 달라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15장에서 암시된 귀애의 변화는 17장에 이르러 절정에 이른다. “이 소녀에게는 벌써 시대의 발소리며 사회의 호흡이 가까이 들리고 있었”고 그녀가 지닌 고민은 “연애라든가 향락이라든가 하는 개인적 욕구의 상위에 처해” 있었다. 수일로서는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귀애의 내면을 이해할 도리가 없다. 그저 귀애 옆에 붙어있지 않으면 “항상 우울하고 한시라도 견디지 못할 만큼 마음이 송구였었기” 때문에 함께할 뿐이었다. 깊은 고민에 빠진 귀애를 위로하는 수일에게 귀애는 “수일이 너무 어른이 되면 알 수 있어”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다. 기생의 숙명을 이해하지 못했던 수일에게 취하는 산월의 태도와 한치도 다를 바 없다. 17장에 이르러 수일과 귀애의 관계는 친구에서 모-자의 형태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인다.

수일-귀애의 관계는 수일-산월의 관계와 유사하게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귀애는 산월의 고민과 지적수준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관계적 도식이 앞선 모-자 도식을 단순히 답습하는 반복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귀애에게는 상징적 아버지의 기능이 매우 약화된 형태로 그나마 흔적과 같이 남아 있기에 그러하다. 그녀는 수일에게 ‘미래’와 ‘꿈’을 언급하는 유일한 인물

43 같은 책, 164면.

이다. 물론 석순철 역시 ‘사상가’라는 꿈을 품고 있었으나 이에 대해 ‘단순히 힘이 센 사람’, ‘어머니의 일을 돕는 사람’이라는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본질적으로는 친구의 틀을 벗어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상가가 되고 싶다는 귀애의 욕망이 확인되고 난 연후에 귀애는 퇴장하고 만다. 가을바람이 선들거릴 무렵, ‘귀애의 침방 속’으로 ‘영금영금’ 들어가는 윤대감을 해주집이 붙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귀애는 수일에게 ‘어른’이 되라는 말을 남기고 ‘임금밭’ 사이로 묘연히 사라진다. 귀애의 역할에 변동이 생기고 수일에게 적당한 성장을 매개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자마자 윤성효의 개입으로 관계가 파탄 난 것이다. 윤성효는 이렇듯 산월과 수일의 사이에, 귀애와 수일의 사이에 난입하여 수일로 하여금 욕망을 구성하고 내면을 키워낼 기회를 앗아간다. 자기 수양딸의 방에 기어든 윤성효의 모습은 탐욕스런 원초적 아버지의 형상과 상동성을 지닌다.

모든 권력을 소유하고 끊임없는 생명력을 자랑하며 자기 권위를 오직 스스로에게서 찾는 아버지의 형상을 두고 프로이트는 ‘원초적 아버지’라고 부른다. 부족의 모든 여자를 독점하며 아들들이 근친상간적 대상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광포한 작인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해와 달〉 설화가 주는 고색창연한 느낌만큼이나 시원적인 과거의 이미지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원초적 아버지’란 고대적 형상이 아니라 실제로는 철저히 현대적인 실체, ‘아버지적 은유’의 쇠락의 결과라는 사실은 강조되어야 한다.⁴⁴ 더 이상 그 어떤 권위도

44 지젝은 주체로 하여금 자신의 욕망을 작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상징적 권위가 정지되면, 그 공백을 외설적인 원초적 아버지의 형상이 보충한다고 진단한다. 이때 우리는 아버지적 권위를 침식시키고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아들 대신, 아버지의 외설적인 협잡에 대한 수치심으로부터 금욕적 순수성으로 퇴각하는 아들을 얻게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슬라보예 지젝, 주은우 역, 『당신의 징후를 즐겨라』, 한나래, 2008, 260면. 또한 원초적 아버지의 출현은 주체의 욕망이 곤궁에 부딪혔음을 알리는 징표로 보기도 한다. 주체는 자신의 욕망이 작동하지 않을 때, 즉 욕망의 내속적 불가능성을 회피할 방도로 욕망의 대상을 모두 가로채 접근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초적 향유자의 형상을 전제하게 된다고 보았다. 내가 즐길 수 없는 이유는 원초적 아버지가 내가 누릴 모든 즐거움을 소유하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슬라보

신념으로 내면화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항구적 의심의 상태에 돌입할 수 있는 현대적 주체만이 발견할 수 있는 형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초적 아버지 형상’의 출현과 성장하지 않는 아이는 맞짜를 이룬다. 아이는 이미 성장이 필요치 않은 상태, 욕망이 작동하지 않는 끔찍한 평온함에 침잠해있기 때문이다.⁴⁵

5. 나오며

아버지의 진짜 기능은 무엇인가? 이는 주체로 하여금 아버지를 상징적으로 살해하도록 하는 것,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가 관장하는 폐쇄적인 가족적 회로

에 지적, 이성민 역, 『까다로운 주체』, 도서출판 b, 2010, 505면.

45 <낙조>를 사로잡고 있는 우울과 비애의 정조, 고립성 등은 어떤 측면에서는 김사량이 자기 속에 갇힌 작가라기보다는 외부를, 즉 ‘독자’를 생각했기 발생한 결과일 수도 있다. 서술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낸다는 점에서 <낙조>는 고전소설의 서술기법을 따르고 있으며, 캐릭터의 정태성, 축첩제도에 의해 야기된 가정 내의 압투로 인해 산월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티프 역시 딱지본 소설에서의 것과 유사하다. 이렇듯 소설의 형식과 내용 모두 조선의 하위 대중이 소비하는 작품들의 문법을 좇고 있어 근대적 지식으로 무장한 이들을 독자로 생각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당대 조선의 출판시장은 연쇄간행물과 단행본 시장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전자가 지식인의 영역, 후자가 서민들의 소비처로 이해되었다는 점을 배경으로 삼는다면 <낙조>가 상정한 독자와 실제로 이를 향유한 독자 사이엔 어떤 어긋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낙조>는 연쇄소설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일본어 소설을 쓸 때 역시 표면적인 독자는 일본인으로 상정되었으되, 조선어에 의해 굴절된 일본어를 사용하며 실제론 조선 지식층이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을 기술했다는 사실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텍스트의 안팎에서 적극적으로 모순을 생산하려는 모양새다. 어쨌든 김사량이 당대 장편소설의 소설성을 지켜내고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대중성에서 구하고자 했고, 바로 그 흔적이 수일의 운명에 서사적 영향을 드리웠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물론 이는 본 논문의 논지에서 벗어나 있는 문제이므로 다른 지면을 통해 살펴볼 사안이다. 식민지의 이중출판 시장의 성격에 대하여 한기형, 『식민지 문역』,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9. 14장 참조.

를 단념하여 자유롭게 자기 삶의 길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⁴⁶ 이러한 측면에서 박성권과 윤성효의 형상은 동시대 전환기적 현실을 전대의 과도기의 한 반복으로 이해하고 앞에서 그들이 머물러 왔던 자리 혹은 벗어나야 할 위험을 가리키는 지표로서 기능한다. 이미 살펴본 바대로 박성권은 형걸이 가출을 결심하게 했고 윤성효는 수일을 집에 잡아 두었다. 두 주인공이 엇갈리는 결말을 맞았음에도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평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작가의 의욕과 의도의 층위에 서면 형걸의 성장은 김남천의 ‘순수함’에, 수일의 미숙은 김사량의 ‘어른스러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영원히 아이로 머물 것만 같은 수일을 그려내는 김사량의 시선은 역설적으로 자신보다 3살 위인 김남천의 시각보다 더 풍상을 겪은 듯, ‘성장’해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김남천은 가족사연대기소설을 하나의 회고적 수단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경계했지만 그들이 내세운 주인공 소년의 내면은 서술의식의 욕망과 어떤 식으로든 착종될 수밖에 없다. 김남천이 형걸의 가출로 근대계몽기를 열정적으로 살아낸 선배들의 전형을 암시했다면 이는 지나간 것 속에서 미래를 구원할 씨앗을 발견하려는 의지의 한 표현이다. 이러한 의욕은 아카데미 지식장에서 유통되는 ‘과학적’ 언어의 외피에 싸여 있다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낭만적 정신으로 규정할 수 있기에 형걸을 집밖으로 내모는 박성권의 욕망으로 표출될 수 있었던 것이다.

김남천은 43년 벽두까지 자신이 딛고 있는 언어, 작품의 선형적 형식에 대한 반성을 유보했다. 일본어에 붓을 대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 때문에 그에게 ‘조선어’는 근대적 담론을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비가시적인 인식의 틀로 이미 전제된 채 있었다. 실은 그가 반성한 적이 없는 조선어라는 기초는 이미 일본어와 일본을 통해 수급된 근대적 문물이란 제반 조건에서 교란된 것으로 박성권의 형상 만큼이나 말할 수 없이 근대적인 것이다. 문우성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형걸이 뒤를 돌아보지 않았던 까닭은 그 뒤에 대결 상대가 되

46 슬라보예 지젝, 박정수, 『잃어버린 대의를 위하여』, 그린비, 2010, 130면.

어준 박성권이 일본이라는 타자를 대신하여 버티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형질의 성장은 타자를 마주한 적이 없는 천진한 무반성성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김남천이 마르크스주의 사회경제학을 중립적 진리의 결정체로 인준하고 이 논리 속에서 특정한 캐릭터를 창출할 목표의식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자기고발 문학론으로도 발견할 수 없었던 모어라는 무반성적 형식에 빚지고 있지 않을까.

김남천은 한 평문에서 지방어를 쓴다는 비판을 방어하며 인정식의 연구를 인용한다. 인정식이 평남 순천 등지에 잔존하는 막인제도(幕人制度)를 머슴으로 분류한 것을 두고 자신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절게’, ‘막서리’ 등의 명사가 그런 구분 밖에 있음을 항변한다. 요컨대 ‘막서리’란 머슴을 뜻하는 ‘절게’와 소작농의 중간단계 칭하는 말이라는 것이다. <대하>의 김두철이 바로 막서리인데, 그가 중국에 ‘도로공부’라는 임노동자로 나서는 대목을 주목해보라고 당당히 말한다.⁴⁷ 지방어의 특수성을 통해 조선의 실상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그 결론이었다. 그 역시 자신 구성한 소설의 함의를 스스로의 지방어에서 구하고 있다. 인정식에게는 인지되지 않는 것이 성천 출신 김남천에게는 너무도 뚜렷한 변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김사량은 김남천과 같이 ‘진리’에 기대지 않았다. 그 진리담론은 언젠가 든 주인담론의 시너 역할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편에서는 고색창연하게 보일 법한 지방 설화를 차용하여 근대적인 대학담론의 틈입을 방어하며 작품 속 관계망을 조직해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김사량이 김남천이 발견하고자 한 ‘아시아적 퇴역성’이라는 조선적 특수성을 완전히 놓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다. 윤성효에게 ‘뚝비’를 입히고 ‘축첩’하게 했으며 소작료로 흑민을 일삼게 했기 때문이다. 김남천이 발견하라고 종용한 과도기의 풍속도 포착하려 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조선어의 영역에서는 이중적 아버지를 세워놓아도 도무지 아이의 편에서는 광포한 아버지로 인지될 뿐이다. 윤성효를 기이한 부권 형상으로 제

47 김남천, 「절게·막서리·기타」, 『김남천 전집 1』, 박이정, 2000, 483면.

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본어라는 타자를 일찍 마주치고 이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조직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가 자신의 평문에서 강조했듯이 일어를 통해 문학을 한다는 결심은 ‘조선인의 실상을 내지에 호소한다.’는 고결한 동기 속에 모어를 희생하고 일어 창작을 통해 분전하겠다는 영웅적 의지의 발로일 것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김사량은 조선어조차도 욕망을 개시하지 못할 이질적 언어로 인지하게 되었다.

이처럼 일본어 창작은 그에게 전통과 완벽히 단절되어 있다는 감각을 심어 주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민족적 공동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간적 도상 위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이미 ‘조선어’라는 환경에서 적출된 채 ‘성장’해 있던 자신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공동체에서 근대적 주체의 탄생은 선형적 시간의 도상에서 출현할 수 없음을, 이 ‘성장’은 언제나 설명 불가능한 도약의 계기를 통해 구성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윤성효가 설화 속 호랑이로부터 상징적 법이라는 부권 기능을 그대로 빌려오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놓여 있을 것이다.

두 작가는 모두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지 못했다. <대하>도 <동백>으로 다시 시도되었으며, <낙조>도 말미에 ‘제 1부, 윤씨네 사람들 끝’이라고 달아두었다. 이는 그들이 가족사연대기소설을 계속 이어가야 할 과제로 남겨두었다는 뜻이기도 하거니와 이야기를 매듭지을 관점을 당대의 장에서는 확보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두 작가의 가족사연대기 소설은 새로운 주체성을 창출하는 문학이라기보다 그들이 어떤 상징계를 통해 현재의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한 방식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ABSTRACT]

A Study on Father's Shape and the Grammar of Growth in the 〈Family history chronology novel〉 at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focusing on Kim Nam-cheon's "Dae-ha" and Kim Sa-ryang's
"Nack-jo"

Lee, Dongjae(Hanyang University)

Rookie Kim Sa-ryang participated in the family history novel claimed by Kim Nam-cheon during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rule. Both authors share the orientation of the 'Roman-Reformation-Theory' to identify "the specialty of Joseon" by chronologically depicting the growth of a boy set in the enlightenment period, but the conclusion of "Nack-jo" and "Dae-ha" seems the opposite. The rationale for their affirmation or denial of the boy's growth can be determined through the father figure, which advocates the principles of the world they are drawing. In the case of Kim Nam-cheon, he assisted the antifeudal father-figure based on socio-economic analysis distributed among marxism intellectuals of the time, and Kim Sa-ryang used his native language of writing and "The Sun and Moon tales" as his methodology to work on the original father figure. The former father figure is portrayed as a competitive and overcoming object, and the latter as a father who does not allow confrontation itself. In the case of Kim Nam-cheon, who understood the literary journey through his devotion to

ideology, In a society leaning toward totalitarianism, While he instilled lack in Park Sung-Kwon's image through his desire to revive the embers of the revolution, Kim Sa-Ryang focused on depicting the internal stalemate of the colonized, which was explored through Japanese creation, leaning on the Korean language. On the other hand, Dae-ha relates to the hope of Joseon discovered by leaning on the language of science, Nak-jo is concerned with the desperation of an era that is waning in the world of folklore objects. Park Sung-kwon and Yoon Sung-hyo were used as symbols to mediate these mental conditions between the two boys.

Key words: Family history chronology novel, Dae-ha, Nack-jo, Name-of-the-Father, totem and taboo, primordial father

[참고문헌]

■ 기본자료

- 김남천, 『대하』, 푸른사상, 2013.
- 김남천, 정호웅 외 편, 『김남천 전집 1』, 박이정, 2000.
- 김남천, 정호웅 외 편, 『김남천 전집 2』, 박이정, 2000.
- 김남천, 「등불」, 『국민문학』, 1942. 3.
- 김사랑, 김재용 외 편역, 『김사랑, 작품과 연구 1』, 역락, 2008.
- 김사랑, 김재용 외 편역, 『김사랑, 작품과 연구 2』, 역락, 2009.
- 김사랑, 김재용 외 편역, 『김사랑, 작품과 연구 3』, 역락, 2013.
- 김사랑, 김재용 외 편역, 『김사랑, 작품과 연구 4』, 역락, 2014.

■ 단행본

- 김영식 편, 『파인 김동환 탄생 100주년 기념 작고 문인 48인의 육필서한전집』, 민연, 2001, 120면.
- 임 화, 『문학의 논리』, 학예사, 1940, 346면.
- 정호웅, 『그들의 문학과 생애, 김남천』, 한길사, 2008.
- 한기형, 『식민지 문역』,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9.
-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윤기 역, 「토텐과 타부」, 『종교의 기원』, 열린책들, 2014.
- 슬라보예 지젝, 박정수 역, 『잃어버린 대의를 위하여』, 그린비, 2010.
- 슬라보예 지젝, 이성민 역, 『까다로운 주체』, 도서출판 b, 2010.
- 슬라보예 지젝, 주은우 역, 『당신의 징후를 즐겨라』, 한나래, 2008.

■ 논문 및 기타자료

- 김기호, 「트릭스터 그리고 성장의 매개자:〈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호랑이」, 『한민족어문학』 42, 한민족어문학회, 2003, 289-315면.
- 김윤식, 「1930년대 후반기 카프문인들의 전향유형분석」, 『한국학보』 16, 일지사,

1990, 2-34면.

김인수, 「이론연쇄와 전향-인정식의 경제론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96, 한국 사회사학회, 2012, 71-112면.

류수연, 「김남천 소설과 ‘성천(成川)’」, 『한국학연구』 59,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61-84면.

박은정, 「호랑이의 조선표상화와 육당 최남천」, 『동아시아문화연구』 61, 한양대학교 동아시아 문화연구소, 2015, 13-33면.

백 철, 「시대적 우연의 수리-사실에 대한 정신의 태도」, 『조선일보』, 1938.12.2.-7
신남철, 「동양사상과 서양사상 양자는 과연 구별되는 것인가 (5)」, 『동아일보』, 1934.3.19.

윤대석, 「1930년대 말 임화의 언어론」, 『우리말글』 45, 우리말글학회, 2009, 199-216면.

이혜령, 「1930년대 가족사연대기 소설의 형식과 이데올로기」, 『상허학보』 10, 상허학회, 2003, 117-148면.

임형모, 「알레고리로 읽는 전환기적 현실-김남천의 〈대하〉와 김사랑의 〈낙조〉를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5, 국제한인문학회, 2008, 181-207면.

장성규, 「1930년대 후반기 소설 장르인식」, 서울대 박사논문, 2012.

정하늬, 「1940년 전후 가족사 소설의 세대론적 고찰-한설야의 〈탑〉과 김사랑의 〈낙조〉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36,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13-48면.

타지마 테즈오, 『김사랑 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3.